

## 溫陽郡誌

### (一) 建置沿革

本來는 百濟의 湯井郡이었는데, 新羅의 文武王이 州로 陞格시켜 摠管을 設置하였다가 뒤에 州를 廢하고 郡으로 하였다. 高麗初에 溫水郡이라 改稱하였다가 顯宗 九年에는 天安府에 所屬되었으며, 明宗 二年에는 監務를 設置하였다. 高麗史를 살펴보면 太祖 八年 乙酉에 庚黔弼을 命하여 湯井에 城을 쌓았다고 記錄되어 있다.

朝鮮朝 太宗大王 十四年에 新昌과 統合하여 溫昌이라 改號하였고, 十六年에 다시 나누어 溫水縣을 設置하였다.

世宗大王 十四年에 溫陽이란 現在의 名稱으로 고치고 郡으로 陞格시켰으며, 郡守 李萬樞가 癸未年에 左營을 溫陽으로 移設하였다가 郡守 韓以原이 在任하던 壬辰年 三月에 左營을 海美로 移送하였다.

### (二) 郡名

湯井郡

溫水郡

燕山郡

溫昌郡

溫陽郡

### (三) 官職

郡守 正四品 洪州鎭管

座首 一人

別監 二人

衙前 三十人

知印 十三人

官奴 十一名

官婢 十二名

使令 十六名

### (四) 姓氏

鄭, 李, 方, 康, 尹, 村, 趙, 孟, 南, 俞

### (五) 山川

(1) 燕山 : 郡 北쪽 二里에 있는 鎭山이다.

(2) 排芳山 : 郡 東쪽 八里에 있는데 天安郡의 萬逕臺 山줄기가 뻗어내린 줄기이다.

(3) 西達山 : 郡의 南쪽 三里에 있는데 곧 雪峨山을 말한다.

(4) 松岳山 : 郡 南쪽 二十一里에 있는데 廣德山에서 뻗어온 줄기이다.

(5) 華山 : 郡 南쪽 十一里에 있는데 天安郡 萬逕臺 山줄기의 來脈이다.

(6) 荒山 : 郡 西쪽 七里에 있는데 廣德山의 來脈이다.

(7) 廣德山 : 郡 南쪽 二十三里에 있는데 公州의 茂成山 來脈이다.

(8) 佳文峴 : 郡 南쪽 三十里에 있다.

(9) 布川 : 郡 東쪽 七里에 있는데 天安郡 豐歲洞에서 根源이 나와서 新昌縣의 大浦로 흘러 들어간다.

(10) 加里川 : 郡 北쪽 一里에 있는데 그 根源이 셋이다. 하나는 郡의 西쪽 全足嶺에서,

다른 하나는 佳文峴에서 또 다른 하나는 本郡의 苐峴에서 흘러나와서 新昌縣 大浦로 흘러 들어간다.

(11) 圓 澤 : 郡의 東쪽 十二里에 있다.

(12) 溫 泉 : 둘레가 1,758尺인데, 郡의 西쪽 七里에 있다.

#### (六) 宮 殿

內殿 十六間 外正殿 十二間 湯室 十二間(神井은 溫泉 곁에 있음)

惠波亭 十間 涵樂堂 十二間

東軒 壁上의 御書龕에 保存되어 있는 圓環郎古傳錦索補(둥근 고리는 곧 옛날부터 傳해오는 것이라 비단 끈으로 補修하고), 今爲飲泣自寫障子(이제 울음을 머금고 스스로 障子에 쓰노라.)

이것은 곧 英祖大王의 御筆이다. 그리고 湯室이 무너질 때에 障子和 御杖의 가 因하여 傳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罪悚스럽고 憫 한 일이다.

丁酉(肅宗 43年, 西紀 1717年) 溫幸錄 一冊이 지금도 殿閣 大廳에 奉安되어 있는데 그 序文을 살펴보면 世宗大王과 世祖大王이 臨幸한 事實을 알 수 있다. 顯宗大王때의 溫幸錄은 傳하지 않고 있다.

#### (七) 駐 神 井 記

天順 八年(世祖 十年, 西紀 1464年) 봄 二月에 우리 世祖大王께서 南쪽으로 忠淸道를 巡狩하시고 俗離山 福泉寺에 幸行하사 慧覺尊者를 보시고 다음날 三月初一日에 溫陽郡의 溫湯에 駐 하시었다.

이미 四日이 지나자 神奇한 샘물이 갑자기 솟아올라 뜰에 가득히 넘쳐 흐르니 聖上께서 크게 異常히 여기시고 命하여 샘을 파게 했더니 물이 넘쳐나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차갑기가 눈과 같으며 그 맑기가 거울 같았고 그 물맛은 달고 매우며 향기로왔고 그 水質은 부드럽고도 연약하였다.

이에 聖上께서 얼굴에 기쁜 빛을 띠시고 곧 扈從하던 大臣들에게 이것을 보라고 命令하시니 서로 돌아보면서 모두들 얼굴에 感歎하는 빛을 나타내면서 "옛날에 없던 일이 지금에 있으며 湯물은 따뜻한데 샘물은 차가우니 最上의 祥瑞로운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八道에서 表文을 올려 致賀하였다.

嘉善大夫 中樞院副使 行忠武衛 上護軍 臣 任元濟 謹記

世祖大王 十四年(西紀 1468年)에 南方을 巡狩하실새 우리 慈聖大王妃(世祖의 王妃)께서도 同幸하시었다. 이미 (世祖 十年) 溫泉에 駐 하셨을 때에 神井의 祥瑞가 있어서 드디어 碑石을 세우라는 命令을 내리사 길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인데 越明年(成宗 7年) 봄 二月에 慈聖兩大王妃(世祖 및 德宗의 王妃)께옵서 溫泉에 駕幸하시니 神井은 그대로 있으나 石刻한 碑文은 磨滅되어 있었다. 이에 지난날을 생각하시고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시어 內需의 돈으로써 石工을 시켜서 重刻하라 하시고 月山大君 臣 , 德源君 臣 曙, 河城府院 郡 臣 鄭顯朝 等에게 命令하여 그 工事를 主管하라 하셨다. 臣 元濟이 일찌기 이 神井記를 지었으므로 이에 碑陰의 誌를 쓰라고 命令하시니 아! 臣이 誌를 지어 올림에 있어서 燕辭를綴한 것이 이미 二十星霜이라 聖上께서 昇遐하심을 哀慟하옵고 人間事의 易變을 슬퍼하면서 犬馬와 같은 餘生이 한 번 죽음을缺한 바일 따름이옵더니 이제 또 扈從에 參與하는 功을 얻게 되었으니 이 命令은 僥倖이 아니요, 天命이라, 懇切한 마음에 感愴하기 그지 없나이다. 이에 臣이 敢히 눈물을 뿌리며 두 손을 모아 절하고 그 顛末을 誌에 記錄하나이다.

成化十二年 三月 日

純誠明亮佐理功臣 崇政大夫 西河君 兼 五衛都摠府都摠管 臣 任元濬 誌  
折衝將軍 行虎賁衛上護軍 臣 李淑 書

顯宗大王 六年 乙巳(西紀 1665年)에 溫泉에 臨幸하사 科擧를 베푸시고 人材를 取하시니  
文科에서 七人을 取하시고 武科에서 二百餘人을 取하시다.

顯宗大王 七年 丙午(西紀 1666年)에 溫泉에 臨行하사 科擧를 베푸시어 人材를 取하시니  
文科에서 五人을 뽑으시고 武科에서 九十人을 取하시다.

顯宗大王 八年 丁未(西紀 1667年)에 慈殿(孝宗의 王妃)을 모시고 溫泉에 臨行하시다.

顯宗大王 九年 戊申(西紀 1668年)에 溫泉에 臨行하시다.

顯宗大王 十年 己酉(西紀 1669年)에 慈殿을 받들고 溫泉에 臨幸하실새 中宮殿(顯宗의 王妃)도 同時에 臨行하시다.

肅宗大王 四十三年 丁酉(西紀 1717年)에 溫泉에 臨幸하사 科擧를 베풀고 人材를 取할새  
文科에서 七人을 取하고 武科에서 二百餘人을 取하다.

英祖大王 二十六年 庚午(西紀 1750年)에 溫泉에 臨行하사 科擧를 베풀고 人材를 取할새  
文科에서 七人을 取하고 武科에서 二百餘人을 取하다.

英祖大王께서 다음과 같은 詩와 記文을 남기셨다.

<英祖 御製 溫殿中 興懷詩 三首>

<其 一>

|                            |           |
|----------------------------|-----------|
| 溫泉의 行殿에서 感懷가 깊은 것은         | (溫泉行殿感懷深) |
| 옛날 兩朝(顯宗·肅宗)께서 모두 御臨하셨음이라. | (昔日兩朝皆御臨) |
| 이 방에서 잠자는 오늘이야 얼마나 幸福한가?   | (今辰何幸宿斯室) |
| 지난날을 追憶하니 마음 더욱 幸福하여라.     | (追憶往年一倍心) |

<其 二>

|                            |           |
|----------------------------|-----------|
| 鋪席과 竹屏은 옛부터 傳해 오는 것인데      | (鋪席竹屏乃古傳) |
| 이제 와서 다시 보니 感興과 懷抱가 앞서는구나. | (今來復見興懷先) |
| 나뭇가지는 아직도 溫殿 속에 남아 있는데     | (木枝尙留溫殿裡) |
| 恭敬하여 匣을 여노라니 눈물 절로 흐르네.    | (敬開 匣淚潛然) |

<其 三>

|                          |            |
|--------------------------|------------|
| 行在所 門 앞의 작은 碑石은          | (行在所門前有小碑) |
| 追憶하건데 지난날 幸臨하실 때 세운 것이다. | (追惟往歲幸臨時)  |
| 이제사 營門에 命하여 옛 일을 記述하게 하니 | (于今述昔命營門)  |
| 本事는 이미 御製詩에 詳細하도다.       | (本事已詳御製詩)  |

<英祖御製 溫殿 記文>

溫殿중에 障子 둘이 있으니 하나는 옛적(顯宗時)에 命하여 남겨 놓은 것이요 다른 하나는  
丁酉年(肅宗 四十三年)에 命하여 남겨 놓은 것이다. 지금에 와서 障子에 글씨를 써서 後日  
에 詳考하도록 하고 御杖(옛 임금의 지팡이)의 箱子에다 [昔年御杖]이란 네 글자를 새겨 놓  
으니 遺澤을 追慕하는 小子의 작은 精誠이 조금은 퍼지는 듯하다.

아! 지난날, 行在所에서 모시고 잠을 자던 일이 然히 어제 일 같은데 지난 歲月을 追慕  
하니 눈물이 웃길을 적신다. 둥근 고리(문고리)는 옛부터 傳한 것이라, 비단 끈으로 보수하  
고 이제 울음을 머금고 스스로 障子에 쓰노라.

<御製自筆 題湯室>

|                       |         |
|-----------------------|---------|
| 오직 丁酉年을 追憶하노니         | (追惟丁酉歲) |
| 三十四年이 지난 봄이로다.        | (三十四年春) |
| 오늘에 臨幸하여 沐浴하노니        | (今辰臨幸浴) |
| 눈물이 흐르며 悲愴한 感懷가 새롭구나. | (涕泣愴懷新) |

(八) 靈 槐 臺

溫宮 正殿의 北西쪽 담장 옆에 있다. 乾隆 二十五年 庚辰(英祖 三十六年, 西紀 1760年) 八月에 莊獻世子께서 溫泉에 臨幸하시어 壇을 만들고 활쏘기를 하셨다. 그리고, 溫陽郡守 尹琰에게 命令하여 溫泉 사람들을 거느리고 세 그루의 느티나무(槐木)를 심어서 規步와 品形으로써 활 쏘시던 場所를 表識하였다.

乾隆 六十年 乙卯(正祖 十九年, 西紀 1795年) 三月에 溫陽郡守 卞緯鎮이 道伯 李享元에게 報告하니 道伯이 金錢 三百緡 支給하여 그 나무 둘레에 臺를 쌓으니 臺의 길이는 十五尺이요 廣은 十二尺五寸이며 높이는 三尺一寸이다. 外階는 길이가 四十一尺이요 廣이 十八尺이며 높이는 一尺이다.

이미 工事を 마치고 道伯이 이 事實을 朝廷에 狀啓하니 聖上(正祖)께서 懷抱가 興感하시어 이에 臺의 옆에다 碑石을 세워 그 事蹟을 記錄하라고 命令하시었다.

이 해 八月에 藍浦縣으로 부터 碑石을 運搬하여 오니 碑石의 長은 三尺九寸이요 廣은 一尺五寸이며 두께는 八寸이다. 籠臺石의 長은 三尺一寸이요 廣은 二尺四寸이며 높이는 二尺이다. 碑石의 正面에는 [靈槐臺]라 御筆하시고 碑石의 後面에는 다음과 같은 [御製靈槐臺銘]을 書하였다.

御 製 靈 槐 臺 銘

|                                                 |              |
|-------------------------------------------------|--------------|
| 溫水의 물가에서 지난 자취를 우두커니 바라보니                       | (緬逞蹟於溫水之涯兮)  |
| 세 그루 느티나무가 鬱蒼하게 茂盛하여 帝王의 日傘같구나. (鬱乎童童而如華蓋者有三槐)  |              |
| 溫湯의 물이 混混히 솟아 흘러 神靈한 뿌리에 물을 대어 주니 (溫湯之水混混而溉靈根兮) |              |
| 數尺 높이의 臺를 에워쌌구나                                 | (繞以高數尺之臺)    |
| 가만히 홀로 이 后皇의 嘉種을 사랑하노라니                         | (竊獨愛此後皇之嘉種兮) |
| 그 위에 五色 구름이 아름답게 덮여 있구나.                        | (其上蓋有五色雲佳)   |
| 이 나뭇가지의 百世를 占쳐보니                                | (占本枝之百世兮)    |
| 將次 後世에 올 사람에게 쌓인 慶事가 流傳됨을 經驗하리라.                | (將以驗積慶之流於後來) |

小子가 卽位한 지 二十年되는 乙卯年(正祖 十九年, 西紀 1795年) 가을 九月, 小子의 生朝 (王의 生辰) 前 三日에 두 손을 모아 절하고 恭敬하여 銘을 쓰노라.

지난날 庚辰年(英祖 三十六年, 西紀 1760年) 八月에 莊獻世子께서 溫宮에 幸行하사 郡守 尹琰에게 命하여 세 그루의 槐木을 射臺에 심어 놓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한아름이나 되어 아름다운 綠陰이 땅에 드리웠다.

今年 春初에 溫陽郡守가 그 곳을 增築하여 그 遺蹟을 表識하였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고 尹琰의 아들 尹行恁이 지금 閣臣으로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碑石 後面의 글씨를 쓰게 하노라.

通政大夫 禮曹參議 奎章閣 檢校 直閣知製敎 臣 尹行恁 奉敎謹書

(九) 臺 直

監官 一員

閑暇한 사람으로서 風度和 能力이 있는 者를 差出하여 溫泉에 所在한 遺物과 各處의 異常  
有無를 奉審하여 修理하며 報告한다.

湯 直 : 三十名

首湯直 : 一名

大闕直 : 一名

臺 直 : 一名

그 나머지는 輪番制로 行宮을 守衛한다.

(十) 英祖溫幸時 差員

英祖大王 二十六年 庚午(西紀 1750年) 九月 十二日에 離宮하여 溫泉에 幸行하사 二十八  
日에 還宮하시다.

(1) 忠淸道 都次員 : 忠州牧使

一路의 都檢飾, 殿內의 都修理兼鋪陳

(2) 溫陽站

가. 都次員 : 淸風府使

本站의 都檢飾廉禁亂官

나. 各務差員

溫陽郡守 : 殿內의 修理

槐山郡守 : 湯內의 修理 兼 水刺·汲水間의 柴炭·雜物 進排差員

沔川郡守 : 湯內의 差備

燕岐縣監 : 水刺·汲水·柴炭 及 雜物 進排差員을 兼함

連山縣監 : 天安站과 稷山站의 內廐馬

新昌縣監 : 天安站과 稷山站의 外廐馬

海美縣監 : 大旗의 奉持

全義縣監 : 陪輦軍과 各色奉持軍

鎭川縣監 : 內外 各司의 修理

扶餘縣監 : 鐵物의 工作

木川縣監 : 木物의 工作

公州判官 : 一路의 道路 및 撥馬의 檢飾

懷德縣監 : 雜物의 捧上

瑞山郡守 : 天安에서 溫陽까지의 道路 修治

結城縣監 : 京中에서의 祇候(시중들기)

金井察訪 : 果川에서의 祇候 兼 火災 防止 및 水原에서의 祇候

堤川縣監 : 傳語(말의 傳達)

泰安郡守 : 柴(떨나무)·炬(헛불)·炭(숯)·燭(초)

鴻山縣監：放料(나라에서 주는 料, 곧 祿을 나누어 주는 일)

永同縣監：醬(소금과 장)

牙山縣監：馬糟(말먹이의 거)

青陽縣監：馬草(말먹이의 풀)

延豐縣監：振威에서의 祇候

德山縣監：空石次知(빈 섬거적 擔當)

保寧縣監：各樣의 器皿(그릇)

連原察訪：可僕所屬 및 驛卒의 供饋

成歡察訪：補除馬·司僕馬의 扶軸驛卒의 領付

懷仁縣監：一路의 馬夫

### (3) 天安站

가. 都次員：淸州牧使

天安站의 都檢飾 및 無禁亂

나. 各務差員

天安郡守：修理 兼 鋪陳

連山縣監：內廐馬(溫泉站을 兼함)

鎭岑縣監：假家 및 空石

陰城縣監：輦陪軍 및 各色奉持軍의 供饋

新昌縣監：外廐馬(溫泉站을 兼함)

恩津縣監：柴·炭·炬·燭·各樣器皿과 放料

禮山縣監：馬糟(稷産站을 兼함)

石城縣監：馬草

定山縣監：禁火(火災防止)

瑞山郡守：司僕所屬 驛卒의 供饋 兼 道路·橋梁

報恩縣監：稷산에서 天安까지 道路修理

### (4) 稷山站

가. 都差員：洪州牧使

稷山站의 都檢飾 및 無禁亂

나. 各務差員

稷山縣監：修理 兼 鋪陳

永春縣監：假家 및 空石

藍浦縣監：柴, 炭·炬·燭

禮山縣監：馬糟(天安站을 兼함)

淸安縣監：馬草兼馬料

丹陽郡守：素沙站 檢飾

韓山郡守：一路의 預差(미리 定해두는 差備官)

連山縣監：內廐馬(溫泉站을 兼함)

新昌縣監：外廐馬(溫泉站을 兼함)

陰城縣監：輦陪軍 및 各色奉持軍의 供饋(天安站을 兼함)

靑山縣監：各樣器皿 및 放料  
文義縣監：司僕所屬 및 驛卒 供饋 兼 道路의 修治  
全義縣監：素沙에서 稷山까지의 道路 修治  
沃川郡守：天安과 稷山の 都預差

(5) 陪從京官의 住接各司 및 庫舍·假家의 分定

忠州：承政院의 糧餉庫 四間，郎廳의 假家 一間  
洪州：內兵曹의 糧餉庫 六間，郎廳의 假家 一間  
清風：浴室의 修理  
丹陽：內間安廳  
槐山：弘文  
林川：吏曹  
韓山：司憲府  
沔川：右議政의 假家  
木川：賓廳  
平澤：監察司儀廳  
清州：糧餉庫 四間，郎廳의 假家 一間，司饗院，儀仗庫(公州와 아울러 定함)  
公州：儀仗庫 十間(清州와 아울러 定함)，司僕馬 假家 二十四間，糧餉庫 四間，郎廳의 假家 一間  
溫陽：御 의 修理，尙衣院의 衣 房과 鍾家  
沃川：別軍 廳，義禁府의 假家  
大興：備邊司，守禦廳  
泰安：翰林房，都摠府의 馬廳 二間  
舒川：外兵曹  
文義：尙瑞院，臺廳  
牙山：儀賓府  
新昌：王子의 間安廳，承政院의 外下處  
禮山：領議政의 假家，司諫院의 假家  
定山：司僕馬의 假家 二十二間  
唐津：宗親府，司僕寺  
永春：內人房의 北邊 闕內의 別殿 東庭門  
恩津：武司廳，宣傳官廳  
鎭岑：藥房  
懷仁：內人房과 水利間(陰城과 아울러 定함)，都摠府의 馬廳 二間  
石城：大殿飯監廳  
鴻山：薪里廳  
藍浦：西守門廳，北守門廳  
結城：戶曹의 郎廳 假家  
保寧：司僕馬의 假家 二十二間  
燕岐：戶曹의 藥庫  
鎭川：藥房，承政院，間安廳

瑞山：排設廳

堤川：香室，東守門廳

黃澗：奏時廳

青陽：司僕馬의 假家 二十二間

德山：別藝別監廳

海美：公事廳，南守門廳

魯城：醫房廳

連山：大殿司謁廳

清安：禮曹

陰城：水 刺間과 內人房의 修理(懷仁과 아울러 定함)，都摠府의 馬廳二間

延豐：大殿扶門，弘化門扶門

永同：御營廳

青山：內吹螺廳，都摠府의 馬廐 二間

懷德：別監待令廳，內人厠間，氷庫 二間

全義：刑曹

扶餘：都摠府

庇仁：司僕馬의 假家 十間

報恩：司 房，別監廳，司謁房